

“기무사, 세월호 인양 대신 해상 추모공원 제언”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에 세월호를 인양하지 말고 그 자리에 해상 추모공원을 조성하자고 제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론을 이용해 인양 불필요 공감대를 확산시킬 것도 제언했다. 모두 인양 이후 불거질 정부 책임론을 차단 하자는 취지에서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입수한 '세월호 관련 조치 동정-해상추모공원 조성'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이같이 청와대에 제언했다. 이 문건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6월께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는 이 문건에서 “지난 5월21일 시신 1구 수습 이후 14일째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민주당 이철희 의원 입수 '세월호 관련 조치 문건' 서

후속조치로 인양 불필요 공감대 확산·비현실성 홍보

참사 한달 뒤 대국민담화시 감성적 모습 시현도 제언

았다”며 “수색 탐보상태 지속 시 선 체인양 여부를 놓고 논란(이) 전망 (된다)”이라고 보고했다. 아울러 “국민적 반대 여론 및 제방 여건을 고려해 불 때 인양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라고 적시했다.

이어 후속조치로 ▲실종자 가족들과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 마련, 인양 불필요 공감대 확산 ▲인양 관련 구조 전문가 인터뷰-언론기고, 인양의 비현실성 홍보 ▲미국 애리조나호 기념

관 같은 해상 추모공원 조성방안 검토 등을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유가족, 큰 돈을 들여가며 굳이 인양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견’이라고 동향을 보고했다. 이어 ▲국내업체 능력 제한에 따른 막대한 인양비용 부담 및 소요 기간 장기화 문제점 부각 ▲침해진 해운 자산(-160억원) 고려 시 인양비용 정부 부담 불가피, 국민 부담 초래 등 대안론 방향을 제시했다.

이 문건은 미국과 인도 등의 수정문화를 언급하면서 “지난 6월7일 BH(청와대)에 ‘미 애리조나호 기념관과 같은 해상 추모공원 조성’을 제언한 것과 관련 세계 각국의 수장(水葬) 문화를 확인했음’이라고 적시하기도 했다.

기무사는 “단원고 실종 학생 부모를 중심으로 마지막 한 명을 찾을 때까지 인양은 언급도 하지마라”는 강경한 분위기를”라고 관련 분위기를 접한 뒤 검토 의견으로 ▲실종자 수색 종료시 전원 수습 여부와 관련 없이 선체는 인양하지 않는 것으로 가족들과 협의 필요(침몰 해역을 해상 추모공원으로 조성 후 매년 희생자 추모행사 개최) ▲인양 반대여론을 확산시켜 사고원인

분석을 위한 인양 필요성 제기 차단 등을 제시했다.

한편,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한 달 뒤인 5월14일께 청와대에 보고한 ‘대국민 담화간 PI(대통령님 이미지) 제고방안 제언’이라는 문건에서 “과거 민심을 추스르고 국론을 결집 시켰던 국내외 PI 제고사례를 참고해 대국민 담화시 감성적인 모습(을) 시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기무사는 ‘천안함 희생장병 추모 연설을 하면서 희생자 이름을 일일이 호명’한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사례로 언급했고 박 전 대통령은 닷새 뒤인 그해 5월19일 대국민 담화에서 눈물을 흘리며 세월호 희생자들의 이름을 호명했다. /뉴시스

‘문고리 3인방’ 전원 유죄

이재만·안봉근 실형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에게 법원이 전원 실형 및 징역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2년6개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비서관 등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중간에서 돈을 전달하는 등 전 국정원장 3명의 특별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 서울 소재 모 호텔에서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8회에 걸쳐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5월21일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이·안 전 비서관에게 벌금 18억원, 정 전 비서관에게는 벌금 2억원을 함께 재판부에 요구했다. /뉴시스

문 대통령 - 리셴룽 총리 정상회담 “신남방정책 협력 강화”

양국 경제협력·해외시장 공동진출 협약 체결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대통령궁에서 리셴룽(李顯龍)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신남방정책을 중심으로 한 양국관계 발전 방안과 한반도 현안을 논의했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 싱가포르와 협력 증진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함으로써 신남방정책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지난달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지 꼭 한달만에 이뤄져 관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올 하반기 첫 순방 주제를 ‘신남방정책’으로 삼으며 지난 8일부터 인도와 싱가포르를 연이어 국빈방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11월 필리핀에서 열린 아세안 회의에서 리 총리를 만난 후 다시 마주하게 되어 반갑다”면서 “우리 양국은 1975년 수교 이후 ‘아시아의 네마리 용’이라 불리며 선진 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경제, 역내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서 함께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우리는 한반도의 주변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께서 한반도 번영과 평화, 비핵화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성공을 기원하겠다”며 “문 대통령이 신남방정책을 특별히 추진하는 일을 기쁘게 생각한다. 아세안과 싱가포르와 관계가 더욱 획기적으로 격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등 긍정적인 상황 변화를 이끌어 낸 우리 정부의 주도적 노력을 높이 평



문재인 대통령과 리셴룽(Lee Hsien Loong) 총리가 12일(현지시각) 싱가포르 대통령궁(이스타나, Istana)에서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가했다. 이러한 상황 변화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했다.

두 정상은 양국 국민 간 우호·협력 이 양국 관계 발전의 가장 중요한 토대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양국 간 청년 진출 및 우수 인재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양국간 인적 교류 규모는 85만 여명이 다. 싱가포르를 방문한 우리 국민은 63만 여명, 우리나라를 방문한 싱가포르 국민은 22만 여명 선이다.

문 대통령과 리 총리는 그간 양국이 추진해온 상생번영의 경제협력력을 평가하면서, 앞으로 싱가포르의 교통·인프라·에너지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또한 우수한 기술력과 인적자원을 보유한 양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스마트 제조, 핀테크, 바이오·의료,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중소기업·스타트업 분야에서도 교류·협력을 높일 방침이다.

회담 종료 후 두 정상은 양국간 협력력을 증진하기 위한 6건의 기관 간 약정(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질서 구축 협력 MOU”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연내 타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한-싱가포르 FTA 이행위원회 조기 개최를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는 내용이다. 양국은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는 등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 질서 구축을 향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 합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에 공동 대응하면서 양국간 상호 호혜적 무역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리 총리는 “한국은 우리 RCEP 협상에 건설적인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타결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MOU 서명식 후 양 정상은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번 회담의 주요 성과를 설명했다.

두 정상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

민간 우호·협력 증진 방안 ▲상생번영의 경제협력 방안 ▲한반도 문제 등 역내 평화·안보 증진 방안 등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리 총리의 빠른 답방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과 리 총리는 이어서 보타닉 가든에서 친교 행사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국빈 방문을 기념해 배양난초에 이토포를 꽂는 행사에 참여했다. ‘파펠리오나다’ 난초 종(種)으로 문 대통령과 김정은 여사 이름이 붙여진 ‘Papilionanda Moon Jae-in and Kim Jung-sook’으로 명명됐다. 두 정상 내외는 정원을 산책한 뒤 오찬을 함께하며 회담 일정을 마무리했다. /뉴시스

안철수 “정치 일선서 물러나

성찰·채움의 시간 갖겠다”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11일 자신의 거취와 관련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성찰과 채움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5년9개월 동안 정치를 하며 다짐해오던 것들을 깨닫고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며 “그 끝이 어떤 건지 저도 알 수 없지만 지금 세계 각국이 직면한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할지 또 우리가 앞으로 나갈 옳은 방향이 무엇인지 숙고하겠다”고 했다.

안 전 대표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당면한 시대적 난제를 앞서 해결하고 있는 독일에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얻고자 한다”며 “그것이 제가 우리 국민과 사회로부터 받았던 과분한 사랑의 100분의 1, 100만분의 1이라도 갚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독일 유학 계획에 대해 안 전 대표는 “지금은 어떤 생각도 갖고 있지 않다. 돌아올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며 “독일에서 시작해 어려움을 극복한 나라들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려는 목적 밖에 없다. 어떤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무주 2018 남대천 물축제

불종음부쥬! 불만남물축제!

2018. 07. 27(금) - 07. 29(일)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남대천 일원

주최·주관 무주읍·무주읍발전협의회

축제일정		요일별	행사명	장소
일시	시간			
7월 27일 금요일	11:00		반디어린이 수중축구 대회	수중축구장
	16:00		무주군 동아리 공연	
	18:40		래시가드 패션쇼	메인무대
	19:00		EDM 파티	
7월 28일 토요일	20:00		영화상영	
	11:00		반디어린이 수중축구 대회	수중축구장
	16:00		전국퍼포먼스댄스대회	
	18:00		식전공연	메인무대
	19:00		개막식	
	20:00		축하공연 [홍진영]	
20:40		불꽃놀이		
7월 29일 일요일	20:45		EDM 파티	
	16:00		전국배틀댄스대회	메인무대
	20:00		영화상영	